http://dx.doi.org/10.35431/MINJOK.83.4

전장 밖의 전쟁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화재 등재 갈등

이 수 정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sooislam86@gmail.com)

국문요약

이 연구는 2017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헤브론 구시가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분쟁 관련 갈등을 분석하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유대교와 이슬람의 갈등을 넘어서 두 국가의 정치적 갈등이 종교적 갈등으로 확장된 사례이다. 두 국가 모두 헤브론을 초기 유일신교 역사의 성지이자, 이브라힘 가족의 무덤이라고 여기었다. 팔레스타인은 모스크, 칸까, 카라반 세라이, 목욕탕 수로 등을 유형 유산으로 정리하여 헤브론 구시가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하는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설계하였다. 유네스코는 현존하는 유산의 가치가 이슬람적인 요소를 더 많이 갖고 있다 판단하고, 팔레스타인의 신청을 승인하였다. 2019년 1월 1일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에 항의하며 유네스코에서 탈퇴하였다. 팔레스타인은 군사력을 앞세운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국가 갈등 속에서 국가와 문화라는 소프트파워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보한 것이었다. 앞으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원의 가치와 이에 기반한 권력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단순히 군사적 영역이 아닌 사회 전반에서 국가 간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주제어 : 팔레스타인, 헤브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분쟁 유산, 소프트 파워

Ⅰ. 서 론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의 무장단체 하마스는 '알아끄사 홍수'라는 작전명으로 이스라엘에 대대적 공습을 감행하였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교전 시작 이후 7일 동안 진행한 임시 휴전 기간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3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BBC 2023). 2024년 1월 현재, 아직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주변 국가로 확전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이다. 2023년 전쟁 이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은 지속되어 왔다. 2021년 5월 10일, 2014년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미사일 공격과 방어가 반복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다(Al-Mughrabi and Heller 2021). 미국과 이집트를 비롯한 국제 사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 압박을 가하며 휴전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을 주도하였고, 2021년 5월 21일 새벽부터 발효된 휴전으로 공습과 로켓 발사가 사라졌다. 11일간 지속된 분쟁으로 가지 지구에서는 최소 26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였고, 이스라엘에서는 13명이 사망하였다고 양측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BBC 2021; OCHA 2021)). 이스라엘 국가 건립 이후 최근까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이 분쟁의 촉발 원인은 라마단 기간에 발생한 갈등이었다. 갈등 기저 원인에는 기나긴 역사 동안 쌓인 모든 요소가 산재 되어 있으나, 표면적 갈등 요인으로는 종교와 알 아끄사 모스크(Haram al-Sharif)라는 역사적 장소가 존재하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정치나 무력 충돌과 같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의 촉발요인부터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영역의 갈등 요소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과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군사적 충돌과 정치적 충돌로만 나타나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헤브론 구시가지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군사, 정치적 영역을 넘어서 문화적 영역에까지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대 사회는 흔히 하드파워라고 지칭하는 군비, 경제력과 같은 요소와 함께 소프트파워의 확보가 중요하다. 소프트파워는 한 국가의 힘을 대외적으로 표출하고,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역시 국제 사회에서 자신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영토로 삼아 통치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소프트파워의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두 국가는 소프트파워를 토대로 양국의 갈등 상황에서 자국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 사회 속 자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을 일으키는 문화유산 등재 사업은 자국의 소프트파워 확보의 일환인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 등재 갈등에서 승리를 거둔 측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역 점유를 두고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당 지역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측은 해당 영토의 통치권을 갖고 있으며, 자신들이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는 상징성을 확보하게 것으로 여긴다 판단하였다. 또한 서로 더 강한 상징성을 갖기 위하여 문화재 등재와 관련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갈등을 빚는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선 헤브론 구시가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후, 유네스코가 발표한 헤브론 구시가지 연구 보고서를 공기어 분석을 활용해 분석한다. 이로써 유네스코가 헤브론 구시가지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를 파악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팔레스타인이 승기를 잡게 된 스토리텔리의 주안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헤브론 구시가지 등재 결과로 인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반응을 파악하여, 문화재 등재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떠올리면 무력 충돌과 정치 갈등, 테러 공격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에 대한 보도와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관련 연구는 중동 지역 관련 연구가 진행된 이래로 가장 많은 연구 성과가 나온 주제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의 역사와 진행 과정은 시대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0년대 이후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분쟁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 홍미정(2018), 장병옥(2009), 김은비(2019) 등이 있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해결 과정과 미래 제언에 초점을 맞춘 논문으로는 윤형호(2010), 황수환(2016), 안승훈(2016) 등이 있다.

유네스코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유네스코의 기능, 목적, 의미, 정체성을 다루며 진행되었다. 유네스코 자체의 의미를 다룬 연구는 임돈희(2004), 이선경(2009)이 있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선정 과정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프랑스의 사례를 다룬 박선희(2009)가 있다. 해외에서는 유네스코와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팔레스타

인 내 문화유산 등재와 갈등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Lecoquierre(2019), Keane(2012), Dumper(2012)가 있다.

소프트파워의 국가 적용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국가가 추진하는 소프트파워 전략과 사회 영향과 관련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중동 지역을 연구한 사례로는 엄익란의 "사우디아라비아 소프트파워와 '온건 이슬람(Moderate Islam)' 정책 함의 연구(2021)"가 있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과 관련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대표 연구자로는 신종호(2009), 김일수 외(2014)가 있다. 유럽을 연구한 사례로는 강경화 외(2018), 김화정(2021)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관련 연구는 부산의 사례를 분석한 박영민(2012), 방탄소년단의 사례를 분석한 정태일 외(2021), 한국의 외교 정책을 소프트파워 차원에서 분석한 조대식(2009)이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국가 간 순위를 매기는 기준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된 GDP, 국방력, 인구 수 등과 함께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이 통용되고 각 국가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소프트파워의 개념은 1990년 처음 대중화되었고 2004년 발전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Nye 1990; 2004). 나이(Nye)는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를 앞세워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탈냉전 이후에 소프트파워에 힘을 쏟는다면, 미래에도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피력하였다(Nye 1990). 최근에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스마트파워(Smart Power)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Armitage and Nye 2007). 즉, 소프트파워는 권력(Power)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탈냉전이후 다각화된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신종호 2009, 36). 1970년대 이후 권력을 뒷받침하는 비물질적 요인, 문화, 이념, 가치체계, 제도 등도 국가 권력을 상징하고 서열화하는데 활용하기 시작하였다(신종호 2009, 36). 결과적으로 힘과 자본의 논리로 국가 간 움직임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가치, 정책, 정치적 가치와 같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국가 간 이해관계의 형성과 협력관계의 구축이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가치를 토대로 여러 기관에서 세계 국가의 소프트파워 순위를 결정하고 공개하고 있다. 물론 비물질적 가치를 척도화 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한계성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현대 사회의 국가 간 대립 구도를 협력 관계로 전환 할 수 있는 시도 중 하나로 여겨진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비교했을 때, 하드파워에서 열세에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런 한계성으로 인하여 팔레스타인에서 무력으로 이스라엘에 대항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양상을 보인다. 게다가 최근 이스라엘과 아랍 주요 국가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전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었고, 이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나타났다(장지향 외 2023). 그러나 팔레스타인 정부가 이와 같은 무력 사용을 지지하거나 선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팔레스타인 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유지하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립하여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만큼, 자신들의 영향력을 국제 사회에 표출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팔레스타인에게 이런 소프트파워는 매력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소프트파워라고 분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미 자국에 존재하는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지원을 확보하고 관광산업에 이바지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이런 효과는 이미 많은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발전을 위해 유산 등재를 노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Hosseini 2021). 결과적으로 팔레스타인이 현재 이스라엘과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문화재를 자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경우, 팔레스타인이 그 지역을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은 현재 자신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문화유산 등재를 활용해 소프트파워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보아야 한다.

Ⅲ. 헤브론 구시가지 기본 정보와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

유네스코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세계유산의 정의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에 의하여 문화유산, 자연유산 혹은 복합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지역을 뜻한다.”(유네스코 홈페이지, heritage.unesco.or.kr)라고 밝히고 있다. 유네스코는 1972년 이집트의 아스완 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 될 위기였던 고대 이집트 문명의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보존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1989년에는 무형유산의 보호, 1992년에는 기록유산 보호 사업까지 문화재 보호와 보존의 영역을 확장하였다(UNESCO 홈페이지).

헤브론 구시가지의 경우 그림1에 기재된 유산의 형태 중, 세계문화유산에 해당한다. 헤브론 구시가지 외에도, 2012년 ‘베들레헴의 예수 출생지: 예수탄생교회와 성지 순례길’이 팔레스타인 관할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2014년에는 ‘올리브와 포도나무의 땅 – 예루살렘 남부, 바티르의 문화경관’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외에도 2009년에 세계기록유산에 ‘UNRWA의 팔레스타인 난민 사진 및 영상기록물’, 2008년에는 세계무형

문화유산에 '팔레스타인의 히카예[1]'가 등재되었다(UNESCO 홈페이지). 국가 규모에 비교해 보았을 때 적지 않은 수의 유산이 등재되고 관리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유독 2017년 헤브론 구시가지 관련 등재 과정 중 양국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났고 국제 사회에 영향을 주는 후폭풍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림 1〉 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유네스코 유산의 종류

출처: https://heritage.unesco.or.kr

단순히 문화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소유권을 가진 국가가 유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유산의 등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각국 정부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고, 이후 자문기구의 평가와 전문가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유산 등재 결정을 마무리한다.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의 훼손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과정을 단축하고 결정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는 긴급 진행(패스트 트랙)을 실시하기도 한다(UNESCO 공식 홈페이지). 세계유산 위원회의 결정이 완료되면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스라엘-아랍 간 유산 등재(유네스코 홈페이지 공개 자료에 직접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사안)와 같은 갈등

1) 아랍 사회와 가정의 이야기를 여성이 전달하는 전통으로 여성들만 참석한 모임에서 연극적 요소가 가미된 구술로 전달된다.

요소가 있는 경우 등재가 유보되고 추가적 회의와 검토가 진행되기도 한다.

〈그림 2〉 유네스코 유산등재 과정과 결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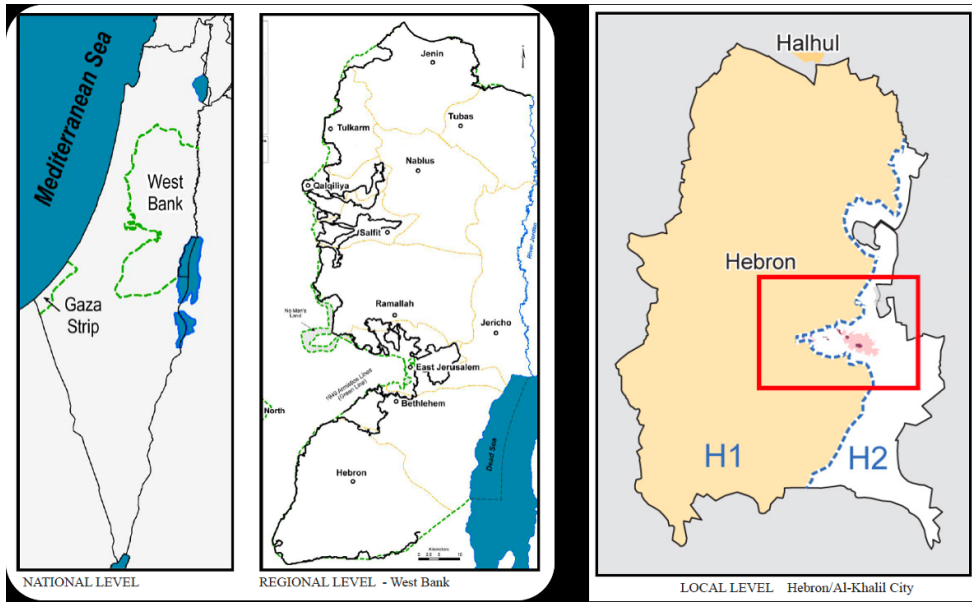
결정사항	내용	비교
등재	세계유산 등재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스라엘-아랍간 유산 등)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등재
보류 (Referral)	일부 미비한 자료가 있어 다음해 2월 1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필요 자료 보완시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	자료 보완시 당해 또는 차기년도 회의에서 등재가능성 높음
반려 (Deferral)	등재신청서상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심화연구 또는 신청서 수정 필요	원칙적으로 현지 재조사
등재 불가	등재 불가	같은 유산 재신청 불가

출처: https://heritage.unesco.or.kr

결과적으로 팔레스타인은 2017년 1월 30일 헤브론 구시가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상황을 이유로 패스트 트랙을 요구하였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심화되고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헤브론 구시가지의 파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다(Haaretz 2016). 유네스코는 패스트 트랙 절차로 헤브론 구시가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평가를 진행하였고, 2017년 7월 7일 헤브론 구시가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되었다(Aljazeera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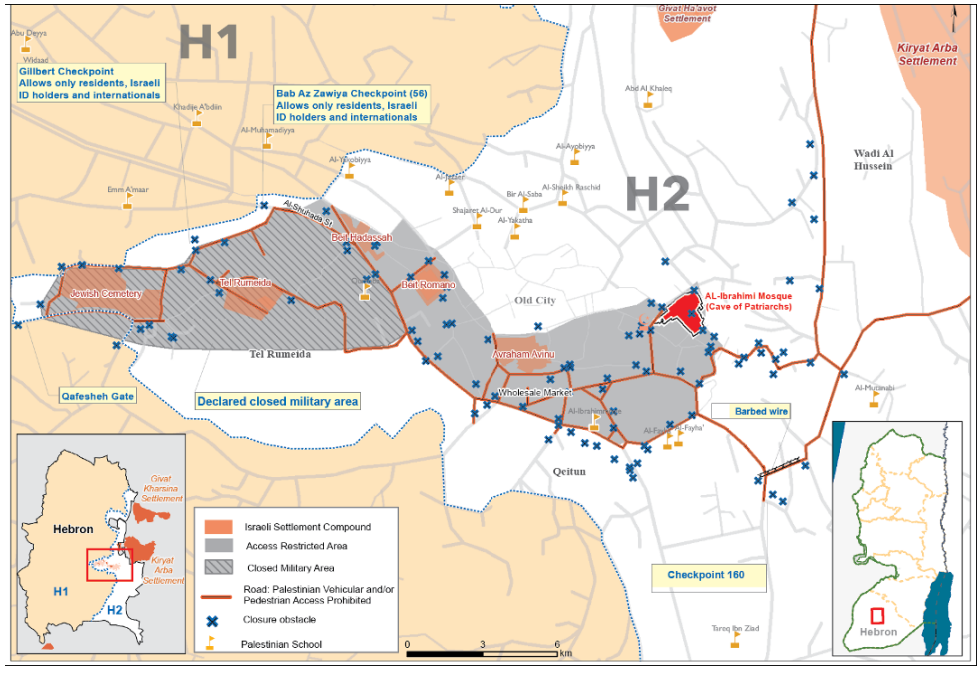
헤브론은 웨스트 뱅크(West Bank) 남부에 위치한다. 헤브론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치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H1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자치구로 H2 지역은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과 확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관할지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2019년 12월 1일에는 헤브론 구(舊)시장 근처에 새 정착촌을 승인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shaheen 2021). 헤브론 지역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으로 이어지는 유일신앙의 성서 기록의 중심지이다. 특히

〈그림 3〉 헤브론 구시가지(역사지구) 위치



출처: Hebron-Al-Khalil Old Town (UNESCO 공식 설명서)

〈그림 29〉 헤브론 구시가지 세부 지도



출처: Hebron-Al-Khalil Old Town (UNESCO 공식 설명서)

이브라힘[2], 이삭, 야곱, 사라, 레베카, 레아의 무덤이 이곳에 위치있다고 알려졌다(창세기 23장 17-20절[3]). 성서에 등장하는 유일신 역사 초기에 등장한 인물들의 무덤이 있다는 점은 이스라엘이 헤브론 구시가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종교 및 역사적 명분이 되었다. 예루살렘과 더불어 헤브론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적 성소로 자리 잡고 있다(Bishop 1948, 94-99). 이와 동시에 기독교 등장 이후, 이슬람의 유입까지 유일신 사상의 모든 역사적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으로 분류되는 세 종교 모두 헤브론 지역을 성지로 공유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일신 사상과 역사의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종교 당사자 간 성소의 의미 부여와 소유권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진행된 것이다(Auerbach 2009, 27-46). 그러나 이브라힘 일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남아있으나, 해당 무덤과 관련된 실제적 유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는 한계 요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헤브론 구시가지의 역사와 유산을 좀 더 살펴보면, 비잔틴 제국 시대에는 구시가지 안에 기독교 성당이 건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 역시 현재 실질적 유적과 유물이 남아 있지 않다. 750년 경, 이슬람 왕조인 우마이야조(Umayyad Dynasty) 통치하에서 모스크를 건설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우마이야조가 691년에 예루살렘에 바위의 돔(Dome of the Rock)을, 751년에는 다마스쿠스 대모스크(Great Mosque of Damascus)를 건설하였기에 비슷한 시기에 헤브론에 기념비적 종교 건축을 진행한 것을 통해 추측하면 헤브론의 중요성은 예루살렘과 다마스쿠스에 못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유적 역시 현존하는 것은 없다. 기록에 따르면 십자군 원정 기간이었던 1099년 원정을 주도한 지도자 중 하나였던 고드푸르와 드 부용(Godfrey of Bouil-lon)이 모스크를 성당으로 바꾸어 사용했다 전해진다. 1187년 아이유브조(Ayyub Dynasty)의 통치자인 살라웃딘(Sallahudin)은 헤브론을 재점령하고, 성당을 다시 모스크로 바꾸며 하람 알 칼릴(Haram al-Khalil)이라 명명하였다. 무슬림 역시 이 지역이 이브라힘 일가의 무덤이

---

2) 아랍어 إبراهيم 을 라틴어 발음으로 표기하였을 때 사용되는 'Ibrāhīm을 한국어 표기법에 맞추어 작성하여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철자법을 따랐다. 종교 및 문화권에 따라 아브라함(Abraham)이라 표기하는 경우도 많으나, 본 연구의 경우 팔레스타인의 관점에서 헤브론 구시가지를 해석하였고, 유네스코 역시 팔레스타인 측이 제시한 헤브론 구시가지 분석 자료를 공식 자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브라힘이라는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바, 본 논문 역시 이브라힘 표기법을 차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교적 편견이나, 사용 표기법에 따라 논조에 변화를 주기 위한 목적을 띄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3) (창세기 23장) 17.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헤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18. 성 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19.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20.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실을 수용하고 무덤이 있을 것이라 간주되는 곳에 모스크를 건설하여 활용하는데 이른다. 맘룩조(Mamluk Dynasty)에 이르면 헤브론은 무슬림의 성지이자 수피(Sufi) 교단의 주요 중심지로 성장한다. 또한 현재와 비슷한 형태로 도심 재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존하는 유산의 대부분은 맘룩조의 통치하에서 건설되었고, 이후 재건이 진행된 것들이다. 맘룩조 이후 헤브론 지역을 통치한 오스만제국(Ottoman Empire)의 경우, 맘룩조가 건설한 도시 기반을 보존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들의 유산이 현재 헤브론 구시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Sellick 1994, 69-78; Cesari 2019).

헤브론 구시가지의 역사와 현존 유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역 점유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정리할 수 있다.

1. 유대교와 이슬람은 헤브론이 성소(聖所)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2.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점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헤브론 내 불법 정착촌 건설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헤브론에 대한 소유욕을 확인할 수 있다.
3. 지역적 특성상 팔레스타인이 헤브론 구시가지 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패스트 트랙을 선택한 것은 필수적 요소였다.
4. 이스라엘 입장에서 헤브론 구시가지의 중요성은 종교 기록에 따른 성소로써 가치에 두고 있다.
5. 헤브론 구시가지 지역의 현존 유물은 이슬람 종교 문화 기반 유산이 대다수이다.

즉 유대교와 이슬람 모두가 공유하는 헤브론이라는 성소는 역사적 가치를 넘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입장이 대립하고, 이스라엘이 강제 점령을 시도하는 분쟁 지역이다. 팔레스타인은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패스트 트랙 과정을 선택하였고, 결과적으로 문화유산 등재에 성공함에 따라, 이는 탁월한 선택이 되었다. 유대인과 무슬림이 모두가 헤브론을 성소로 여기고 있다는 감정적 공유와 별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헤브론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강조하는 요소에 차이가 있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재되어 있는 기록에 따라 현재는 볼 수 없는, 무형유산에 가까운 성서 이야기를 강조하였고, 팔레스타인은 성서의 기록과 함께 현존하고 있는 이슬람 세계의 문화유산을 강조한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가 존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 기반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이 앞세울 수 있는 역사와 문화 유산에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헤브론 구시가지가 문화유산으로 등재 과정에서 두 국가가 강조할 수 있는 헤브론 구시가지의 의미와 자국의 역할에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Ⅳ. 유네스코의 헤브론 구시가지 분석 초점

앞 장의 마지막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유대교를 대표하는 이스라엘과 이슬람을 대표하는 팔레스타인이 헤브론 구시가지를 두고 주안점을 두는 요소에 차이가 있었다. 문화유산 선정 과정에서 두 국가 모두 헤브론 구시가지를 분석하고 해당 지역이 지니는 가치와 향후 보존 전략을 기록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헤브론 구시가지가 최종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헤브론 구시가지 공식 분석 자료는 팔레스타인이 주도로 작성한 서류이다. 이스라엘의 주안점은 선정 시기 전후로 보도된 보도 자료와 그동안 학자들이 언급한 내용을 통해 추측이 가능하다. 이스라엘(유대교)에게 헤브론은 종교 성지이다. 종교적 뿌리에 해당하는 믿음의 조상들, 이브라힘 일가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마크펠라 동굴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단순히 이브라힘 일가와 무덤이 중요하다는 표면적 사실과 함께, 유대교의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었다(Auerbach 2009, 27-46).

팔레스타인의 경우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종교 성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마크펠라 동굴 위에 이브라힘 모스크를 건설하였고, 실제로 헤브론 구시가지 내에는 이슬람 왕조 통치하에 건축된 유적이 대다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유네스코가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공개한 헤브론 구시가지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유네스코가 문화유산 선정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두는 요소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유네스코가 공개하고 있는 헤브론 구시가지 보고서는 207장에 달한다. 도시의 지리적 개요부터 역사, 유적, 관리 계획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분석을 담고 있다. 해당 문건의 키워드와 사용된 단어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기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프로그램 R을 사용해 옥스퍼드 대학교가 제공하는 Quanteda를 통해 207장에 서술되어 있는 글에 대한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였다. 단어의 사용 빈도를 분석하는 빈도 분석과 단어 간 미시적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토픽분석, 거시적 관계성을 살피는 공기어 분석을 실시하였다(이수정 외 2020; Kenneth 2018; Core 2013; Hadley 2016).

〈그림 31〉 공기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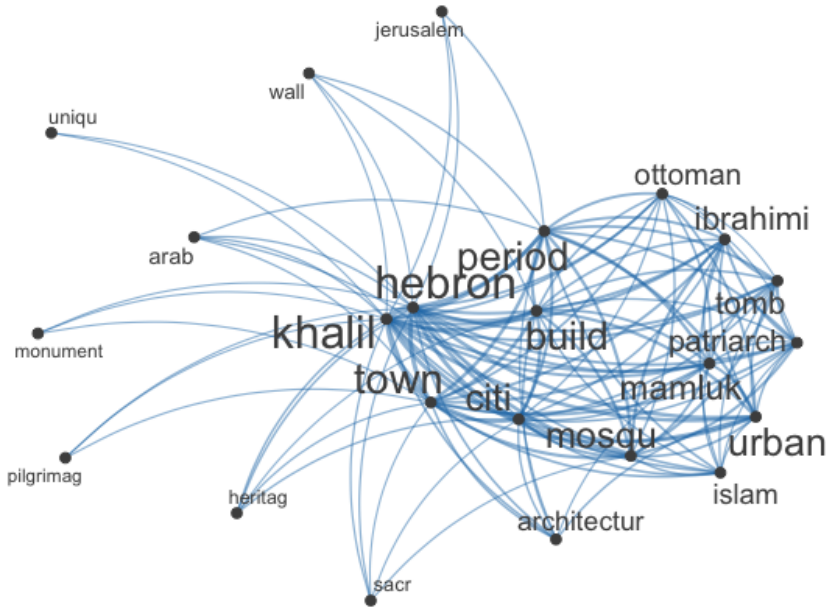


그림 5를 살펴보면 공식 문서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를 통해 유네스코가 승인한 헤브론 구시가지 문화유산에 대한 키워드가 어떤 것인지,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헤브론 구시가지를 지칭하는 단어인 'hebron', 'khalil', 'town'을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서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였다. 이스라엘에서 강조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과 가장 차별성이 있는 단어로는 'mosqu(e)[4]', 'mamluk', 'ibrahim', 'islam', 'tomb', 'architectur(e)', 'ottoman'등이 나타났다.

4) 원래 표제어는 mosque이지만 표제어 처리 과정에서 문법적 변화 요소로 사용되는 어미 활용 알파벳 e가 삭제되었다. 이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단어가 존재하며, 이 경우 어미에서 삭제된 알파벳을 덧붙여 해석한다.

〈표 1〉 토픽 분석 자료[5)]

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wn	mosqu(e)	mamluk	restor(e)
hebron	khalil	build	build
architectur(e)	period	ottoman	situat(e)
pilgrimag(e)	ibrahimi	urban	occup(py)
khalil	hebron	period	condit(ion)
citi	tomb	small	zone
patriarch	citi	great	isra(el)
attribut(e)	islam	element	social

표1의 토픽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헤브론 구시가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건축과 마크벨라 동굴을 지칭하는 'patriarch'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pilgrimage'를 함께 사용하여, 성지로써의 의미를 강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 째 열을 보면 'ibrahim'과 'tomb', 'mosque'를 함께 사용하여, 단순히 이브라힘 일가의 무덤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실제로 현존하는 모스크를 함께 다루고 같은 맥락 속에서 이슬람을 사용한 것이 확인 가능하다. 세 번 째 열에서는 'ottoman', 'mamluk', 'urban'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슬람 왕조의 실질적 기여와 도시화 작업을 논한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마지막 열에서는 'israel'과 'restore', 'zone', 'occupy' 등의 단어가 함께 사용되어 헤브론 구시가지의 현 상황과 향후 보존 계획을 논한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유네스코가 공개하는 헤브론 구시가지 관련 문건에서 실제로 반복하여 사용하는 단어와 각 단어의 상관 관계, 맥락을 수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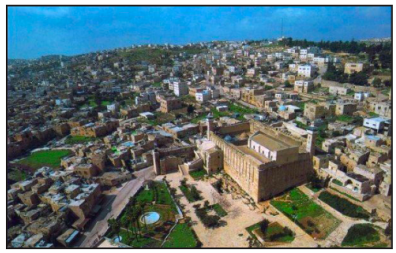
해당 보고서는 마크벨라 동굴 위에 건설된 이브라힘 모스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는 "유네스코 결의안은 14세기 이브라힘 모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적시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하였다(Beaument 2017; 홍주희 2017). 이를 증명하듯 공식 보고서 역시 이브라힘 모스크를 여러 사진 자료와 함께 세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5) 토픽에 부여된 번호는 순서나 중요성과 같은 의미가 부여된 것이 아니다. 또한 각 토픽에 속한 10개는 위계적 구조가 아닌 무작위 표기이다. 각 토픽에 열에 속한 단어들은 서로 동일 맥락에서 상관관계성이 높게 사용된 것을 의미한다.

〈그림 32〉 이브라힘 모스크 구조를 자세히 설명한 페이지

Description of the main elements

A monumental enclosure, a mosque and an open courtyard divided by chapels, arcades and a *takiya* (Persian word meaning prayer hall and hospice) as well as the Patriarchs Cave constitute the monument.



1- Sacred enclosure
2- Al-Ishaqeyyah Mosque
3- Isaac Cenotaph
4- Rebecca Cenotaph
5- Mihrab al-Ishaqeyyah and Minbar
6- Dikkat al-Muballigh
7- The two accesses to the cave
8- Courtyard
9- Women's Mosque
10- Abraham Cenotaph
11- Sara Cenotaph
12- Jacob Cenotaph
13- Leah Cenotaph
14- Al-Jawaliya Mosque
15- Joseph's tomb

Plan with location of the principal elements of Al-Ibrahimi Mosque/The Tomb of Patriarchs

출처: Hebron-Al-Khalil Old Town (UNESCO 공식 설명서)

또한 모스크 내부 구조물 역시 다양한 각도의 사진, 과거와 현재의 비교, 건축과 재건 과정 등 세밀하게 기록하였다. 이브라힘 모스크와 더불어 헤브론 구시가지 내 여러 유적지를 정리하여 기록해두었다. 보고서에서 다루는 문화유산 목록을 분류하면 모스크, Zawiyeh(Khanqah)[6], 목욕탕, 수도교, 분수, 연못, 카라반 세라이(Caravan Serai)[7], 성벽이 있다. 모스크는 이브라힘 모스크와 함께 맘룩조에 건설된 이븐 오스만 모스크(Ibn Uthman Mosque), 17세기에 건설된 알 까자진 모스크(Al-Qazzazin Mosque)가 있다. Zawiyeh의 경우 6개가 넘는 유산이 남아있어, 헤브론 지역이 수피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목욕탕 역시 맘룩조, 19세기, 20세기에 건축된 것이며 수도교와 분수도 도시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맘룩조가 건설하였다. 성벽의 경우 일부 십자군 시대의 유산이 남아있다.

6) 수피 교단이 수행과 교육을 위해 세운 장소
7) 이슬람 세계에서 상단과 여행객을 위해 건설된 숙소

〈그림 33〉 모스크 내부 구조물을 과거·현재를 비교하며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The Minbar (5) (a sort of chair/pulpit)

The wooden minbar, engraved with Kufi inscriptions, which stands to the right of the *Mihrab* was commissioned in 1091-1092 by the Emir of the Fatimid army, Badr al-Din Jammali (Collectif 2004). It was originally intended for the mosque in Ashkelon (BerchemMax van 1993), but was brought to Hebron/Al-Khalil by Saladin. This minbar is a noteworthy piece, as it is one of the few pulpits left from the Fatimid Period (960-1099) (Rosen-Ayalon 2002). The minbar Nur ad-Din, which was in the al-Aqsa Mosque in Jerusalem, had similar features to the one in Hebron/Al-Khalil. Unfortunately, it was burned in 1969.

Old and new views of the Minb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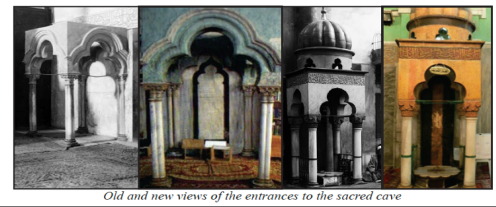
Preaching platform (6)

To the west of the prayer hall lays a magnificent preaching platform (Dikkat al-Muballigh) built in 1332. Originally, this platform was square shaped and was located in the central aisle. It was moved in the 20th century.

Old and new views of the preaching platform (dikkat al-Muballigh)

The entrances to the sacred cave (7)

Only two entrances to the sacred cave are known, both of which are sealed. The one on the west is an opening surrounded by a marble wall covered with a cupola held up by four pillars.



Old and new views of the entrances to the sacred cave

출처: Hebron-Al-Khalil Old Town (UNESCO 공식 설명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객관적 지표와 공식 문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내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본 문서가 지속적으로 다루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유산들이다. 이스라엘이 강조한 종교 이야기에 바탕을 둔 가능성이 아니라, 헤브론 구시가지에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찾아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적을 글 전반에서 다루고 있다. 이스라엘이 종교와 연결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강조했다면, 이와 비교하였을 때 팔레스타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이슬람 시대의 유산을 강조한 것이다. 유네스코는 무형유산의 가치도 인정하고, 이 역시 보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헤브론 구시가지의 경우 현존하는 유산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결국 유네스코는 실제로 존재하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팔레스타인 측에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국가별 반응과 팔레스타인의 전략

세계문화유산은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투표는 익명으로 진행되는데 찬성 12표, 반대 3표, 기권 6표로 팔레스타인의 헤브론 구시가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되었다. 결과를

발표하자 카멜 샤마 하코헨(Carmal Shama-HaCohen) 주(駐) 유네스코 이스라엘 대사는 발표 직후, 핸드폰을 꺼내들며 "파리에 있는 내 아파트 배관공에게 전화가 왔는데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 당신들의 결정 따위는 화장실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당시 이스라엘 총리였던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는 "유네스코의 망상적 결정"이라 총평하였다. 지피 호토밸리(Tzipi Hotovely) 외교부 차관은 "유대인의 국가 상징을 도용하는 결의안이 다수 아랍국가의 무조건적 지지로 통과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예루살렘 정책연구소는 AP 통신을 통해 "서안 지구 운명을 가를 협상으로 팔레스타인의 득점 포인트였다."라는 논평을 내놓았다(Beaument 2017).

엘리아스 산바르(Elias Sanbar) 주(駐) 유네스코 팔레스타인 대사는 "팔레스타인은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종교를 새겨 넣지 않는다. 종교는 그렇게 새겨지는 것이 아니다. 팔레스타인의 땅은 점령당했지만 주권이 있는 나라이며,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합당한 권리이다"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외무부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압박을 받는 유네스코 회원국에 맞서 모든 전선에서 싸운 팔레스타인의 외교 전쟁 승리이다."라고 총평하며 고무되었다(Beaument 2017).

날이 선 상호 간 논평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실질적 행동에 나섰다. 두 국가는 즉각 유네스코 탈퇴를 공식화하였고 2019년 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하여 유네스코를 탈퇴하였다(Marwecki 2019). 당시 두 국가의 유네스코 분담금 미납액수는 6억 달러였다(KIEP 2019). 2023년 7월 미국은 미지급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유네스코에 재가입하였다(서울경제 2023). 가입 목적은 유네스코에서 세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제 2023). 실제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유네스코 견제와 재정 압박은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된 2011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었다. 헤브론 구시가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이스라엘과 미국은 유네스코에 대한 맹비난을 퍼부으며 유네스코를 탈퇴하였고,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재가입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헤브론 구시가지는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에 등재한 세 번째 세계문화유산이다. 그 전에 베들레헴 예수 탄생 교회와 바티르 문화경관이 등재된 바 있다. 헤브론 구시가지 사례와 다르게 이전의 두 등재 과정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이 가시화되지 않았다. 헤브론 구시가지 등재 과정에서만 유독 이스라엘의 견제와 외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전 등재 사례와 이번 사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두 가지 요소를 찾을 수 있다.

1.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는 기독교인의 성지이다.
2. 베들레헴과 바티르 지역에는 대규모 정착촌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베들레헴의 경우 기독교인의 성지이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경쟁적으로 문화유산 등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유대인이 공유하는 종교,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종교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기독교의 성소기 때문에 이를 팔레스타인에서 등재하는 것에 반기를 들지 않았다고 해석해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과 바티르 지역에서는 대규모 정착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정치적 대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굳이 팔레스타인과 대립각을 세우며 문화유산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 베들레헴과 바티르 지역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며 보존을 해야하는 의무를 갖을 필요가 없고, 문화유산 등재를 한다고 해도 자국에 이득이 되는 사안이 없었다.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 베들레헴과 바티르 지역은 자국에 정치, 경제, 문화적 이익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팔레스타인은 이들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유대교의 상징적 요소와 정착촌의 존재 및 확장 가능성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정책을 견제하고 제동을 거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역시 갈등 요소가 많은 문화유산의 등재 시도가 아무리 표면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종교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국가 간 갈등으로 비화 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 체제의 안정성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힘겨운 갈등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은 왜 문화재 관련 국제 활동을 집중하는 것일까?

팔레스타인은 2011년 9월 유엔에 가입 신청을 하였다. 누구나 예상하듯 신청은 기각되었다. 유엔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5개 유엔 상임이사국(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중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국가가 없어야 한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가입 신청을 반대하였다. 같은 해 10월 팔레스타인은 유네스코 역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유네스코의 경우, 전체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가입 승인이 진행된다. 193개국 중 173개국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 중 찬성 107표, 미국과 이스라엘이 포함된 반대 14표로 유네스코에 가입되었다(Keane and Azarov 2012). 비록 유엔 가입은 실패하였으나, 유네스코라는 또 다른 국제기구, 혹은 연구자에 따라서 진입 장벽이 낮다고 평가하는 국제기구 가입을 실현함으로써 국가의 입지를 다지고, 국제 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소득을 거두었다(Cesari 2014, 265-270).

실제로 유네스코에 종류와 관계없이 유산을 등재하고 관리 주체로 선정되는 것에 대해 해당 국가가 이익을 얻는가, 손해를 보는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Caust 2017, 1-9). 실제로 유네스코는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해서 자연과 문화를 보호하고, 가난에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인류사에 가치를 더하는 작업이라 밝힌다(Galla 2012). 또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등재 효과에 대하여 “해당 유산이 어느 특정 국가 또는 민족의

유산을 떠나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

아울러 저개발국의 경우, 세계유산기금, 세계유산센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등 관련 기구를 통해 문화 유산 보존과 보호를 위한 기술 지원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 또한 국제적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관광객이 증가하고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관광 산업 전반의 성장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Yang, Xue and Jones 2019). 나아가 세계유산이 소재한 지역과 국가라는 자긍심을 갖게 되고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진다고 밝힌다(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팔레스타인의 입장에 대입해보면,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을 응집하며,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작업이었다.

즉, 문화 유산을 둘러싼 이스라엘과의 갈등은 단순히 소모적 논리가 아닌, 갈등과 논쟁 그 자체를 통해서 자국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국제 사회의 관심을 집중 시킬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더하여 문화유산 등재라는 결과를 가져 온 팔레스타인은 수많은 언론의 헤드라인처럼 이스라엘 간 갈등에서 압승을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Ⅵ. 결론

결과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과 가입 이후 진행한 문화유산 등재 사업은 소프트 파워의 확보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이스라엘 건국 이 후 수없이 많이 진행되었던 전쟁과 유혈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너무나 많은 희생자를 양산하였다. 헤브론 구시가지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과 해결 과정은 무력 충돌은 없었지만, 그와 동일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치열함과 노력, 경쟁이 존재하였다. 202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하마스)간의 전쟁이 심화되고 여러 이익 집단의 참전으로 인하여 확전의 기로에 놓인 이 상황에서 세계 여러 국가들은 이 오랜 갈등의 해결 방안을 서둘러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가 어떤 양상을 띠게 될지, 어떠한 결론을 맺게 될지 누구도 섣부르게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팔레스타인의 국제 기구 활동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무력 충돌과 다른 양상의 활동과 내포된 의의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약소국인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의 대립 상황에서 자국의 통치력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소프트파워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을 선택하

였다고 보아야한다. 물론, 팔레스타인이 단순히 소프트파워 강화만을 선택하여 대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프트파워 강화 전략도 팔레스타인이 국제 사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수없이 많은 소프트파워 강화 방법 중에서 팔레스타인은 적극적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라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유네스코 역시 강대국에 의한 힘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들의 공정한 기준에 따라 팔레스타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 선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미국이 탈퇴하고, 유네스코가 확보할 수 있는 자금에 유출이 생기기도 하였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또한 해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문화유산은 물리적 힘이 없다. 오히려 분쟁 지역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파괴되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절대적 약자이다. 그러나 문화유산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국가의 경쟁과 갈등을 상징하는 요소로 사용된 것이 바로 헤브론 구시가지 등재 갈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저 약자기만 한 문화유산이 갈등의 중심에서, 또한 잠시나마 경쟁의 무게추를 물리적, 경제적 부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담고 있는 유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위치한 땅은 미사일과 로켓포가 쏟아지는 땅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유구한 역사와 이야기, 수많은 문화유산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무력 갈등이라는 키워드로 바라 본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둘러싼 분쟁 과정과 각국의 스토리텔링이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헤브론 구시가지 문화유산 등재는 팔레스타인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앞으로 또 어떤 문화유산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이 등장하여 양 국가 간 정세에 영향을 줄 정도로 치열하게 확장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치열한 국가 간 갈등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통한 스토리텔링, 소프트파워의 확보가 역으로 전통적인 갈등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통한 본 논문의 사례 연구뿐만 아니라, 국가 간 분쟁, 종교 간 분쟁에 이르는 추가 연구를 진행한다면, 국제 사회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구축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 상황에도 시사점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화 · 엄홍석. 2018. 프랑스의 문화 소프트파워, '아스테릭스' 분석. 글로벌문화콘텐츠 (32), 1-21.
- 강혜선. 2019. 언어 경관 연구: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24(2), 1-25.
- 교육부. 2015.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별책 5]).
- 김은비 · 안준형. 2019. 이스라엘 국경장벽 설치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9(3), 169-197.
- 김일수 · 최형룡. 2014. 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과 공자학원의 역할. 한국동북아논총 (73), 25-44.
- 김화정. 2021. 소프트파워 관점에서의 문화정치와 국가역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사례분석. 문화정책논총 35 (1), 163-190.
- 박선희. 2009.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과 프랑스의 전략. 한국정치학회보 43(3), 195-217.
- 박영민. 2012. 부산시의 '소프트 파워 도시' 추진 전략. BDI 정책포커스 (144), 1-12.
- 서울경제. 2023. 분담금 7800억원 냈다 … 미국, 유네스코 복귀하는 까닭은? https://www.sedaily.com/NewsView/29QU7GV3B6
- 신종호. 2009. 중국의 소프트파워 외교의 전개와 국제정치적 함의. 국가전략 15(1), 33-64.
- 안승훈. 2016.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두 국가 해결론 (Two-State Solution)'에 대한 고찰. 한국과 국제정치 32(1), 105-136.
- 윤형호. 2010.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전망 모델: 오바마 행정부의 중도 조정자 역할과 이스라엘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31(1), 1-46.
- 이선경 · 강상규. 2009.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회의의 성과와 시사점. 환경교육 22(3), 1-14.
- 이수정 · 최두영. 2020. 이슬람과 국내 언론의 시각: 2011-2019년을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41(1), 95-122
- 임돈희 · 로저L · 자넬리 · 박환영. 2004.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 유산제도와 그 의미. 비교민속학 26, 499-522.
- 장병옥. 2009.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하마스. 중동연구 28(1), 153-185.

■ 장지향 · 성일광. 2023.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분석과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출처: https://bit.ly/3TcwKb7 (검색일: 2023. 12. 24.).
■ 정태일 · 최예나 · 김연회. 2021. 방탄소년단의 소프트 파워 효과. 한국과 국제사회 5(1), 51-76.
■ 조대식. 2009. 소프트파워 시대의 한국 공공외교와 문화외교. 국가안보와 전략 9(3), 2-15.
■ 홍미정. 2018. 2018 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전망. 중동문제연구 17, 1-41.
■ 홍주희. 2017. 팔레스타인, 유네스코 문화전쟁선 이스라엘에 압승. 중앙SUNDAY, https://news.joins.com/article/21764075 (검색일: 2021. 3. 4.).
■ 황수환. 2016. 평화협정의 유형 분석: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체결 과정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21(2), 61-97.
■ Aljazeera. 2017. UNESCO declares Hebron Old City a world heritage site. https://www.aljazeera.com/news/2017/7/7/unesco-declares-hebron-old-city-a-world-heritage-site
■ Al-Mughrabi, Nidal and Jeffrey Heller. 2021. Reuters. Jerusalem violence leads to rockets, air strikes.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violence-erupts-al-aqsa-mosque-israel-marks-jerusalem-day-2021-05-10/
■ Armitage, Richard L, and Joseph Nye. 2007. Smart power and the US strategy for security in a post-9/11 world. Testimony before the Sub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November 7.
■ Auerbach, J. S. 2009. Hebron Jews: Memory and Conflict in the Land of Israel.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BBC. 2021. Hamas rocket fire a war crime, Human Rights Watch says.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58183968
■ BBC. 2023.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w0dpl08z0po Search: 2024. 01.11
■ Beaument, Peter. 2017. Unesco makes Hebron old City Palestinian world heritage site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jul/07/unesco-recognises-hebron-as-palestinian-world-heritage-site (검색일: 2021. 3. 4.).

■ Benoit, Kenneth et al. 2018. Quanteda: An R package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extual data. Journal of Open Source Software 3(30), 774.
■ Bishop, E. F. 1948. Hebron, City of Abraham, the Friend of God. Journal of Bible and Religion. 94-99.
■ Caust, J., Vecco, M. 2017. Is UNESCO World Heritage recognition a blessing or burden? Evidence from developing Asian countries.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27, 1-9.
■ De Cesari, Chiara. 2010. Hebron, or heritage as technology of life. Jerusalem Quarterly (41).
■ De Cesari, Chiara. 2014. World heritage and the nation-state: a view from Palestine. Transnational memory: circulation, articulation, scales 19, 247-270.
■ Dumper, M., Larkin, C. 2012. The politics of heritage and the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agency in contested cities: a study of the role of UNESCO in Jerusalem's Old Cit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5-52.
■ Galla, A. (Ed.). 2012. World Heritage: benefits beyond bord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aretz. 2016. Full Text of UNESCO's Contentious Resolution on Jerusalem and the Countries That Voted.
https://www.haaretz.com/israel-news/2016-10-18/ty-article/full-text-of-unescos-resolution-on-jerusalem/0000017f-e016-db22-a17f-fcb7ab8b0000
■ Hosseini, Keyvan, Agnieszka Stefaniec, and Seyedeh Parisa Hosseini. 2021. World Heritage Sites in developing countries: Assessing impacts and handling complexities toward sustainable tourism.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20: 100616.
■ Keane, D., Azarov, V. 2012. UNESCO, Palestine and archaeology in conflict. Denv. J. Int'l L. & Pol'y, 41, 309.
■ Keane, David, and Valentina Azarov. 2012. UNESCO, Palestine and archaeology in conflict. Denv. J. Int'l L. & Pol'y 41: 309.
■ KIEP. 2019. [이슈트렌드] 미국과 이스라엘, 유네스코 탈퇴.
출처: https://bit.ly/3IgEItt (검색일: 2023. 12. 15.).
■ Lecoquierre, M. 2019. Hebron: A nested division of sacred spaces. In Contested Holy Cities. Routledge.

■ Marwecki, Daniel. Why Did the U.S. and Israel Leave UNESCO?. E-International Relations.
https://www.e-ir.info/2019/02/14/why-did-the-u-s-and-israel-leave-unesco/
■ Nye, J. S. 1990. Soft power. Foreign policy 80, 153-171.
■ Nye, J. S.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Public affairs
■ OCHA. 2021.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Response to the escalation in the oPt Situation Report. No.1.
■ Sellick, Patricia. 1994. The Old City of Hebron: Can It be Saved? Journal of Palestine Studies 23 (4), 69-82.
■ Shaheen, Wael. 2021. Urban Planning and Its Impact on the City of Hebron.
■ Team, R. Core. 2013.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http://www.r-project.org.
■ UNESCO. 2017. Hebron-Al-Khalil Old Town. https://whc.unesco.org/en/list/1565/
■ Wickham, Hadley. 2016. Package 'rvest'.
https://cran. r-project.org/web/packages/rvest/rvest. pdf.
■ Yang, Yang, Lan Xue, and Thomas E Jones. 2019. Tourism-enhancing effect of World Heritage Sites: Panacea or placebo? A meta-analysis. Annals of Tourism Research 75, 29-41.

● 투고일: 2024.01.14. ● 심사일: 2024.02.05. ● 게재확정일: 2024.02.14.

| Abstract |

War beyond the battlefield: The heritage conflict in Israel and Palestine

Yi Soojeong (The Sogang Euro-MENA Institute)

This article examined the conflict for registering World Cultural Heritage - Hebron Old Town-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in 2017.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is an example of a political conflict that extends beyond the conflict between Judaism and Islam to a religious conflict between two states. Both countries share the concept of Hebron as a holy site of the early history of Monotheism - the tomb of Ibrahim's family. The Palestinians have designed their own narrative for Hebron's Old City to be inscribed as a World Heritage Site by cataloging its mosques, khanqahs, caravanserais, and baths aqueducts as tangible heritage. UNESCO approved Palestine's application, finding that the value of the existing heritage site has a more Islamic element. 1, Jan 2019, Israel and the United States withdrew from Unesco in protest. Palestine brought a new paradigm to secure the Soft Power of nation and cultural competition in the middle of a national conflict between Israel-Palestine based on the military force acting. Conflicts between states over the value of invisible social resources and power over them will occur in every corner of the world, and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is an example of how state-to-state conflicts are sharpened in all aspects of society, not just the military sphere.

〈Key words〉 Palestine, Hebron, UNESCO World Heritage, Contested Heritage, Soft Power